

# 해남 흑천리 마등 4호 토광묘 출토 화천의 보존처리와 고고학적 분석

Conservation and  
Archaeological Analysis of  
Huo Quan Coins Excavated  
from Tomb No. 4 at the  
Madeung Archeological Site in  
Heukcheon-ri, Haenam

김미도리<sup>1,\*</sup>, 조연태<sup>2</sup>, 이양수<sup>3</sup>

<sup>1</sup>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sup>2</sup>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

<sup>3</sup>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실

Kim Midori<sup>1,\*</sup>, Jo Yeontae<sup>2</sup>,  
Yi yangsu<sup>3</sup>

<sup>1</sup>Conservation Science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sup>2</sup>Naju National Museum

<sup>3</sup>Jinju National Museum

\* Corresponding Author:  
Kim Midori

Tel: 82-2-2077-9424  
E-mail: midori79@korea.kr

##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해남 흑천리 마등 4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청동주화 화천(貨泉)을 보존처리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고고학적으로 해석하였다. '화천'은 중국 왕망대(王莽代)에 만들어진 동전으로 우리나라의 삼한시대에 사용되었던 화폐이다. 해남 흑천리 마등 유적에서는 조사결과 총 13점이 중첩되어 출토되었는데, 크게 세 묶음으로 구분된다. 이중 B 묶음의 한 점만 육안으로 화천이라는 글자가 확인되며, 나머지는 전혀 글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존처리 방법은 우선 동전 표면 위에 고착된 이물질 제거하고 취약한 재질을 강화한 후 접합하였다. 다음으로 동전의 정확한 개수와 표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Nano CT 촬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3점 중 12점에 화천이라는 명문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흑천리 출토품 외에 광주 북룡동 무덤에서 다량의 화천이 출토되는 사례로 보아 당시 이 지역에서 화폐경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어** : 화천, 왕망전, Nano CT, 화폐 경제

##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conservation treatment and scientific analysis of the ancient Chinese bronze coin known as Huo Quan(貨泉) coins excavated from Tomb No. 4 at the Madeung Archaeological Site in Heukcheon-ri, Haenam. Huo Quan coins were issued in China by Wang Mang(王莽) when he founded the short-lived Xin(新) Dynasty and were used in the Samhan(三韓) period in Korea. A total of thirteen Huo Quan coins were excavated from the Madeung Archeological Site with some coins fused to each other. They were classified as clusters A, B, and C. On a coin from the B cluster the classical Chinese characters “貨泉” are visible to the naked eye, but no characters are visually identifiable in the other coins. For conservation treatment, foreign substances attached to the surfaces of the coins were removed, weak materials were reinforced with protective coatings, and fragments were reattached to the main bodies of the coins. Next, Nano CT scanning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xact number of coins within the clusters and examine the surface condition of the coins. It revealed the inscription “貨泉” on twelve out of thirteen coins. In addition to these coins excavated from Heukcheon-ri, a number of coins were excavated from a tomb in Bokryong-dong, Gwangju. This necessitates an investigation into the possible development of a monetary economy in this region.

**Keywords** : Huo Quan coins, Wang Mang Coins, Nano CT, Monetary Economy

투고일: 2020. 10. 2. 심사(수정)일: 2020. 11. 11. 게재확정일: 2020. 11. 13.

## 1. 머리말

대한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해남 흑천리 마등유적은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특히 마한시기의 4호 토광묘에서 화천이 꾸러미로 출토되어 주목되었다<sup>[1]</sup>. 이렇게 동전이 꾸러미로 출토된 점, 함께 출토된 옥의 재질, 토기의 조합 등을 볼 때 이전 조사된 광주 복룡동 2구역 1호 토광묘 출토품<sup>[2]</sup>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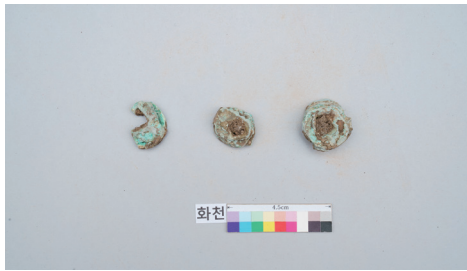
이 글은 이 마등유적 4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화천의 보존처리에 대한 내용과 화천에 대한 Nano CT 촬영, 현미경 분석, 제작지의 추정 등을 바탕으로 당시 한반도 남부 출토의 중국 동전에 대해 논의 해보고자 한다.

## 2. 보존처리

### 2.1. 보존처리 전 상태조사

동전의 상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동전의 지름과 내·외곽의 유무와 크기, 천의 크기, 동전의 두께 등을 측정하고 유물의 특징을 기록하였다.

조사대상인 동전은 총 13개로 추정되며 3점, 3점, 7점씩 덩어리져 있다. 편의상 A묶음, B묶음, C묶음으로 표기하였으며, 자세한 동전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모두 부식으로 인해 마모가 심한 상태여서 육안조사 및 현미경 조사, X-ray 촬영 결과를 조합하여 측정하였다. A묶음은 동전의 2/3 이상이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표면 마모가 매우 심하여 글자의 유무를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없었다. 화천의 일부도 결실되어 상세크기 측정이 불가능했다. B묶음은 외곽이 대부분 결실되어 정확한 지름의 크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3점의 동전 중 유일하게 표면에서 ‘화천(貨泉)’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전의 표면에는 흙 등의 이물질과 지푸라기 등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동소지는 남아있지 않았다. C묶음은 동전 7점이며 가장 아래쪽 표면에 있는 동전은 파손되어 1/4가량만 남아 있다. 동전의 지름은 20mm 내외이며 두께는 0.8~2.05mm이다.



a                      b

(a) 전면 A, B, C류음  
(b) 후면 A, B, C류음

도1. 보존처리 전 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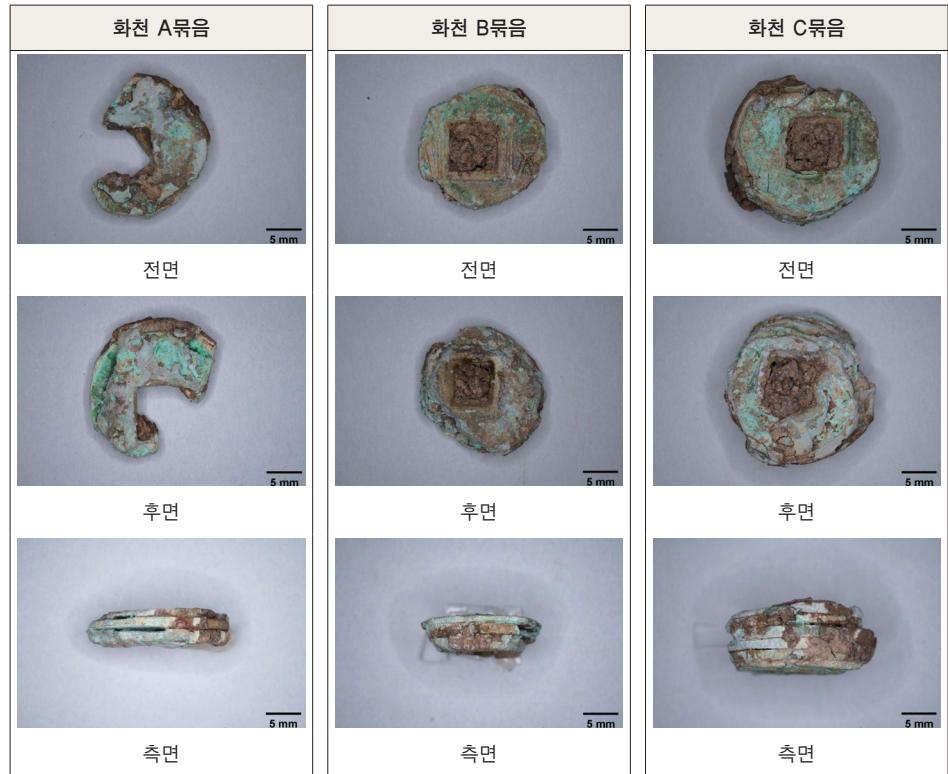
표1. 화천의 세부 제원 (단위: mm)

연번	사진	분류	지름(최대)	두께(최대)	창(크기)	무게(g)	
						처리전	처리후
1		A류음	20.0	1.1	7.7×7.7	1.8	1.7
2			20.0	1.45	-		
3			20.2	1.91	-		
4		B류음	18.6	0.8	5.5×5.5	1.8	1.6
5			18.1	1.73	-		
6			15.4	2.04	-		
7		C류음	20.5	0.9	6.4×6.4	5.4	5.3
8			20.2	1.2	-		
9			20.0	1.6	-		
10			-	1.6	-		
11			-	1.4	-		
12			19.3	1.5	-		
13			10.2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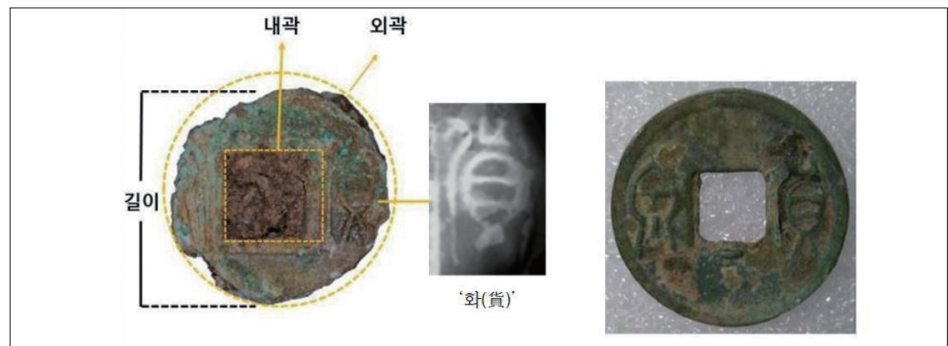
2.1.1. 현미경 조사

동전 표면의 상태, 크랙, 부식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체현미경으로 미시적 특성을 조사하고 상태를 관찰하였다.(ZEISS AXIO Zoom, V 16)

동전의 표면은 모두 부식되어 푸석한 상태이며, 광(郭) 내부는 유기물과 흙 등의 이물질이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전 표면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어려웠다. 유일하게 화천 B류음에서 표면에 명문을 확인하였다.



도2. 보존처리 전 화천 실체현미경 사진



도3. 화천의 세부 명칭

### 2.1.2. 이물질제거

실체 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하며 먼저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부드러운 붓과 미세면봉에 Ethyl alcohol을 이용하여 표면 전체를 닦아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동전의 상태가 매우 약하였으므로 원형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였으며 겹겹이 뭉쳐진 화천은 억지로 분리하지 않았다. 세

척과정에서 흙과 모래알갱이가 혼합되어 유물 표면과 치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은 Ethyl alcohol에 수분간 담가 두었다가 다시 세척하였다.

### 2.1.3. 안정화처리와 강화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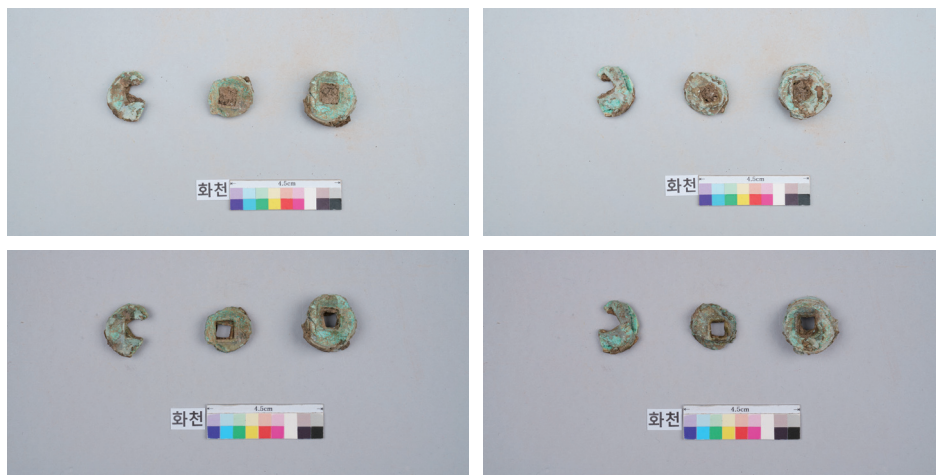
부식억제제인 B.T.A.(Benzotriazol) 3wt.%(in Ethyl alcohol) 용액에 자연 침적한 후 밀봉하여 일주일간 유지하고 꺼내어 후드에서 자연건조 하였다. 강화처리는 아크릴계 수지인 Paraloid B-72 10wt.%(in Acetone : P.M)용액에 자연 침적하여 꺼낸 뒤 자연 건조 하였다. 건조 후 같은 약품을 이용하여 2회 붓으로 도포하여 코팅막을 고르게 형성하였다.

### 2.1.4. 접합 및 복원

미세 균열부위는 아크릴계 수지인 Paraloid B-72 10wt.%(in Acetone) 용액을 주사기로 주입하였다. 유리섬유를 Paraloid B-72 10wt.%(in Acetone)에 함침시켜 얇은 판 형태로 제작한 유리섬유판을 이용하여 균열 부위를 덧대어 접합하였다. 일부 접합은 순간접착제(Cyanoacrylate)를 이용하여 접합하였다.

### 2.1.5. 마무리

접합부위와 충전부위는 아크릴 물감으로 주변과 유사하게 채색하여 색맞춤하였다. 보존처리 기록카드에 처리과정, 사용약품, 처리 후 중량 등을 기록하고 사진촬영하여 마무리 하였다. 처리 후 제원은 <표1>과 같다.



도4. 보존처리 전 · 후 화천

### 3. Nano CT 조사

화천의 내부 상태 및 정확한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Nano CT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촬영 조건은 <표2>와 같다.

표2. 분석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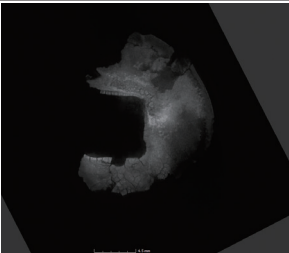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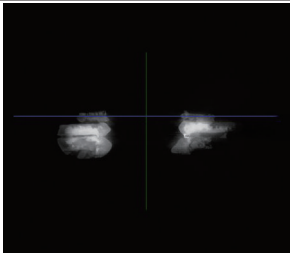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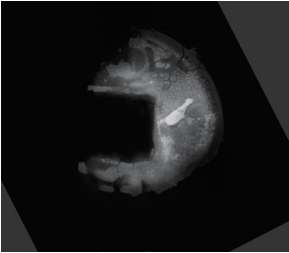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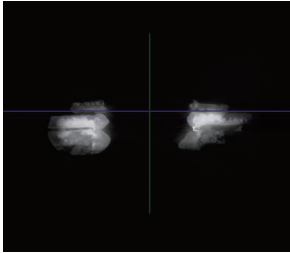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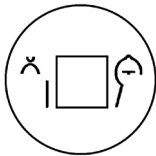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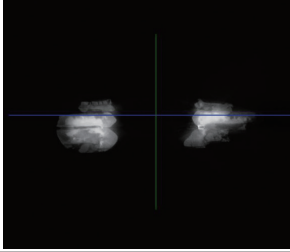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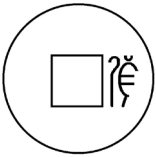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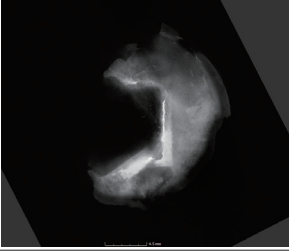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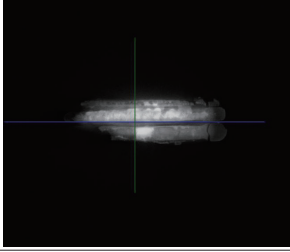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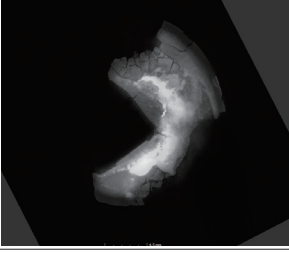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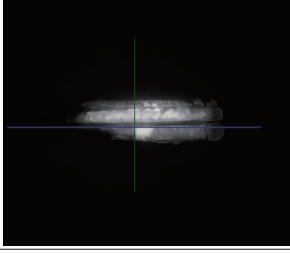
분석 기기	분석 기기명	나노CT 분석 조건							
		전압	전류	회전 각도	회전단계	디텍터	디텍터 크기	픽셀 사이즈	단층영상 개수
나노CT	FF20CT, Yxlon Germany	170kV	39.0μA	360°	0.25°	1,792×2,176 pixel	249×302mm	139μm	1440

#### 3.1.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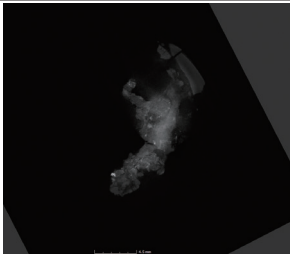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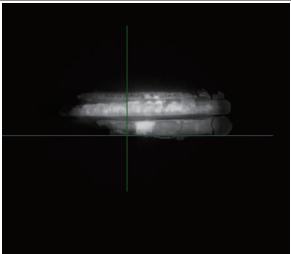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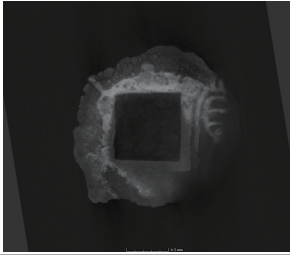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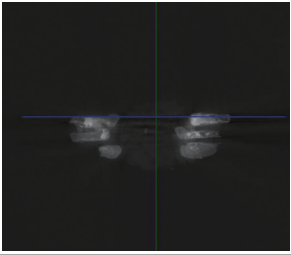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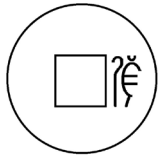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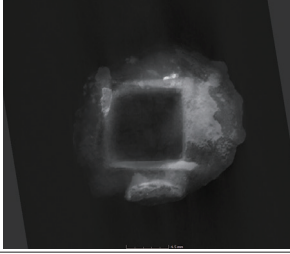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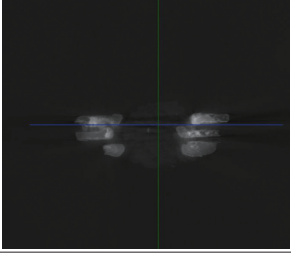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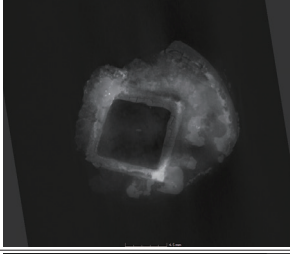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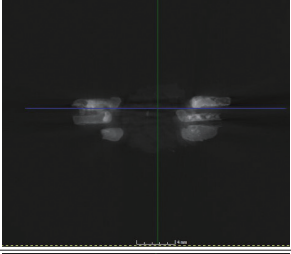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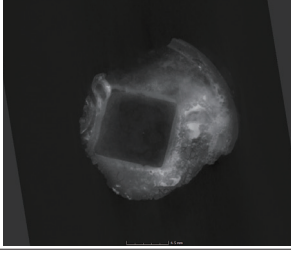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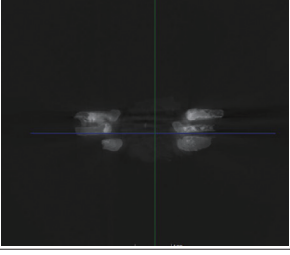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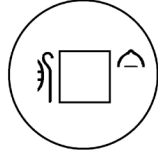




동전은 총 13개이다. 혹시 각 묶음이 접합될 가능성에 대해 사진으로 복원해보았으나, 서로 접합되지는 않았다. 남아 있는 광의 형태로 본다면 서로 접합될 가능성은 적다.

동전은 모두 세 덩어리인데, B묶음에서 ‘화천’이라는 명문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나머지는 서로 붙어있어 육안으로는 명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상태가 좋지 않고 박리가 심해 전체적인 크기조차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모두 화천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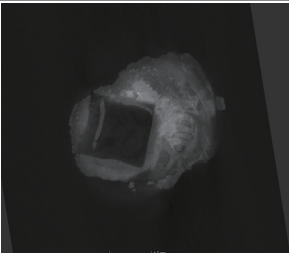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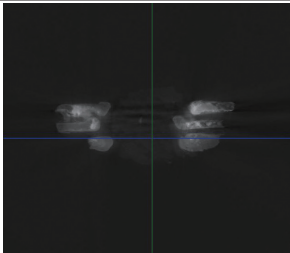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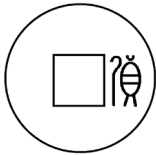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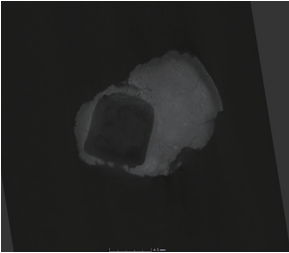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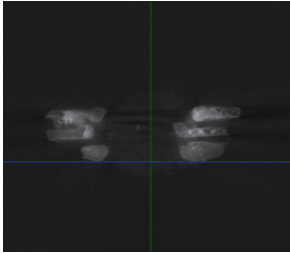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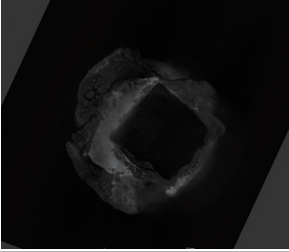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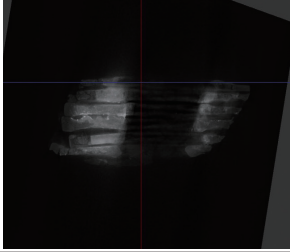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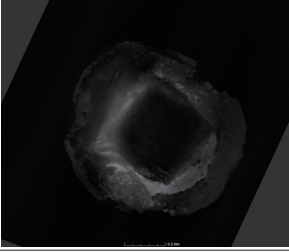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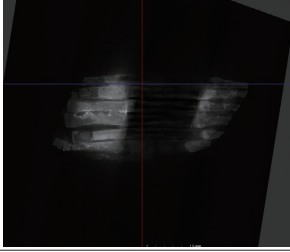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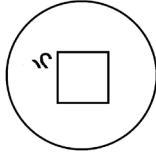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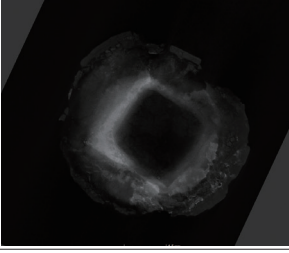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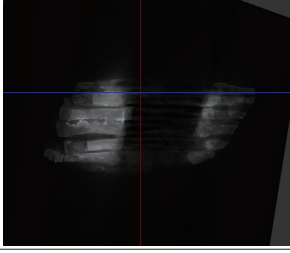
이 동전들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Nano CT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총 13점 중에서 12점에서 명문이 확인되었다<sup>(55)</sup>. 이를 통해 이 동전들은 ‘화천’으로만 이루어진 꾸러미로, 화천이 주조된 기원후 14년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에 무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부장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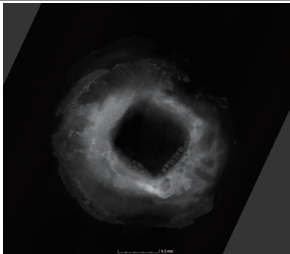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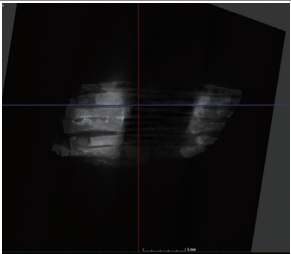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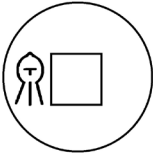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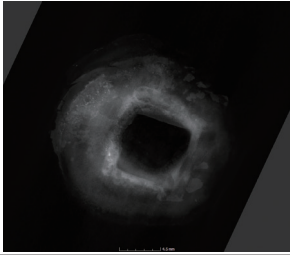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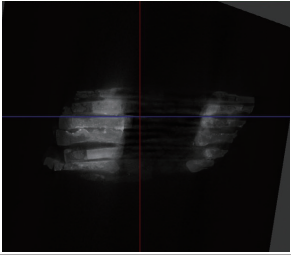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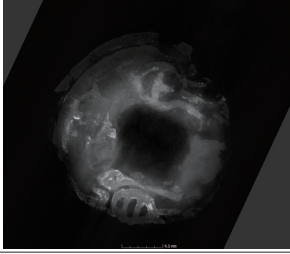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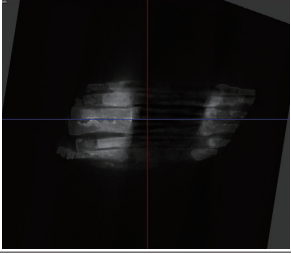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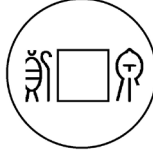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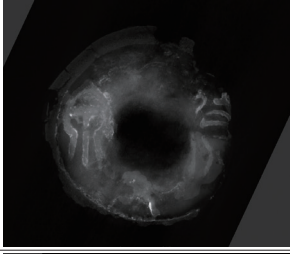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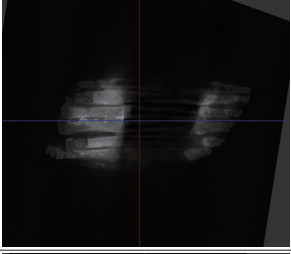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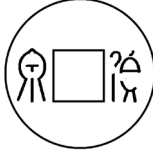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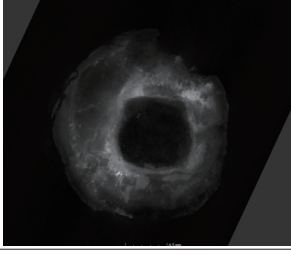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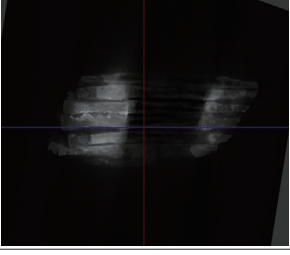
분류	연번	명문	형단면	측면촬영위치	명문 표기
A 류 금	1 상 면	-			
	1 하 면	화 천			
	2 상 면	화			
	2 하 면	-			
	3 상 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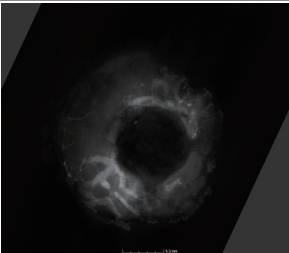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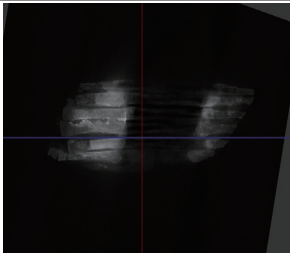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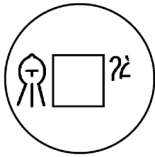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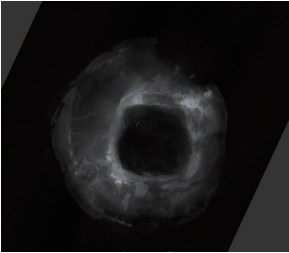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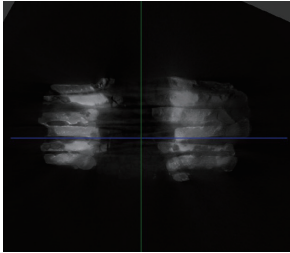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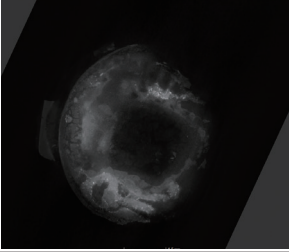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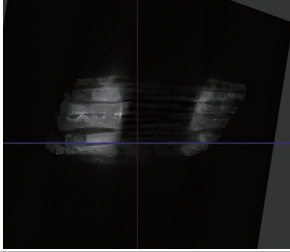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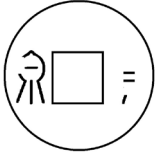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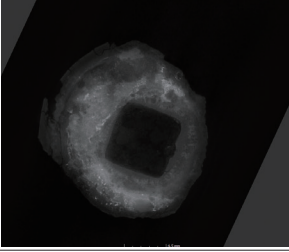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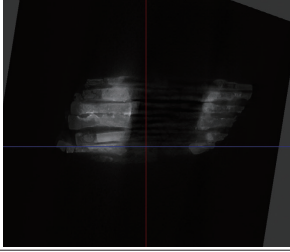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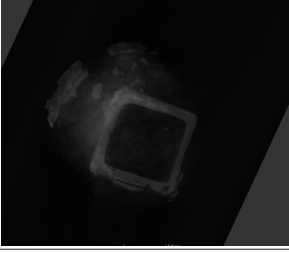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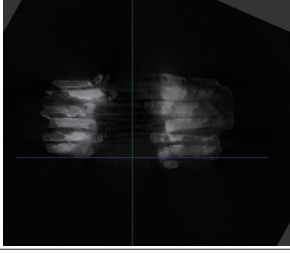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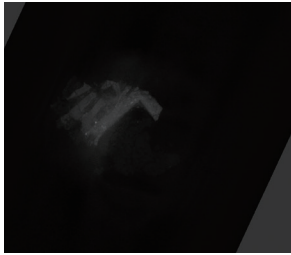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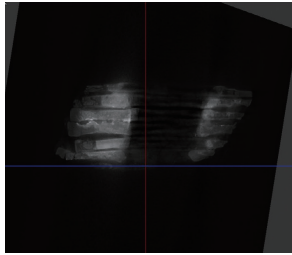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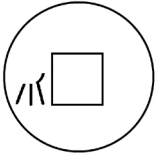
분류	연번	명문	횡단면	측면촬영위치	명문 표기
A 류 금	3 하 면	-			
	1 상 면	화			
	1 하 면	-			
	2 상 면	-			
	2 하 면	화 천			
B 류 금	1 상 면	화			
	1 하 면	-			
	2 상 면	-			
	2 하 면	화 천			
	3 하 면	-			



분류	연번	명문	형단면	측면촬영위치	명문 표기
B 류 미	3 상 면	화			
	3 하 면	-			
C 류 미	1 상 면	-			
	1 하 면	화			
	2 상 면	-			

분류	연번	명문	횡단면	측면촬영위치	명문 표기
C 묘 부	2	화 하 면			
	3	- 상 면			
	3	화 하 면			
	4	화 상 면			
	4	- 하 면			

분류	연번	명문	횡단면	측면촬영위치	명문 표기
C 류 미	5 상 면	화 천			
	5 하 면	-			
	6 상 면	화 천			
	6 하 면	-			
	7 상 면	-			

분 류	연 번	명 문	횡단면	측면촬영위치	명문 표기
C 목록 음	7 하 면	천			

도5. 화천의 단층촬영 영상(Nano CT)

〈도5〉는 Nano CT 촬영 후 한 묶음의 동전을 겹쳐진 순서대로 횡단면을 상면과 하면으로 표기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A묶음은 모두 3점이 겹쳐진 것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동전에서 각 각 ‘화천(貨泉)’과 ‘화(貨)’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전에서는 상면과 하면 모두 글자를 확인 할 수 없었다. B묶음 역시 3점이 겹쳐진 것으로 첫 번째 동전의 표면에서 유일하게 육안으로 명문이 관찰되었다. 두 번째 동전의 하면에서 ‘화천(貨泉)’라는 명문이 확인되었고 세 번째 동전에서도 ‘화(貨)’자가 확인되었다. C묶음은 모두 7점의 동전이 겹쳐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마지막 동전은 1/4 정도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천(泉)’의 상형자 아래 부분이 확인되었다. 13점의 화천은 모두 상태가 좋지 않으며 동소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성분 분석이 어렵지만, 향후 중국과 한반도 각지에서 출토되는 화천의 성분 분석을 통해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 동전을 주조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4. 마등유적 출토 화천의 한반도 주조 가능성 검토

##### 4.1. 왕망 전후의 한

화천은 ‘재화가 샘솟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명칭으로 소위 ‘왕망전’이다. 왕망전이란 전한과 후한의 사이, 왕망이 건국한 ‘신’에서 사용하던 동전이기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외척세력으로 성장한 왕망(王莽)은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어 사람들의 신임을 받지만 점차 야심을 키워 평제를 독살하고 어린 아들 영(嬰)을 즉위시켜 황제를 바꾸어버린다. 이를 통해 정권을 독차지하여 ‘가황제(假皇帝)’ 또는 ‘섭황제(攝皇帝)’라고도 불리는데, 기원후 8년 천명을 받아 가황제에서 진황제가 되었으며, 국호를 신(新)으로 정하여 나라를 세운다.

왕망은 즉위하면서 여러 방면에 걸쳐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선 유가의 경전에 따라 관명을 고치고, 서주 시대의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런 왕망의 개혁을 ‘탁고개제(托古改制)’한 복고 정치라고도 한다. 정치적으로 봉건 제도를 회복하고 왕전(王田)

제도를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경제적으로 육완(六莞) = 관(管) 제도를 실시하여 소금과 철, 술의 전매는 물론 산이나 연못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모두 국가에 귀속하였다. 또한, 노비를 폐지하여 매매를 금지하는 등 선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실질적인 경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준비 없이 옛 것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실패로 돌아간다. 특히 화폐 제도가 복잡하게 여러 번 바뀌면서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다.

#### 4.2. 왕망의 화폐개혁

이런 왕망의 개혁이 실패한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잦은 화폐개혁을 꼽는다. 전한 말부터 신대까지 총 4번의 화폐개혁을 실시하였는데 居攝 2(AD 7)년 첫 번째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전의 통화는 전한 元狩 4(BC 119)年 한무제에 의해 처음 주조된 화폐 오수전으로 통일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많은 양의 오수전을 가지고 거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왕망은 우선 고액권을 만들었는데 대천오십(大泉五十), 계도(契刀), 착도(錯刀)라는 세 종류의 새로운 화폐가 그것이다. 이 세 종류의 화폐를 새롭게 주조해서 오수전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대천오십은 직경 1촌(寸) 2분(分), 무게 12수(銖)로, 이것을 오수전 50개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하였다. 대천오십에 칼을 붙인 모양을 한 계도는 길이 2촌으로, 오수전 500개의 가치에 상당했으며, 착도는 이 계도에 다시 황금으로 ‘一刀’라는 문자를 기입한 것으로 오수전 5000개의 가치를 갖는 것이었다.



도6. 대천오십 · 계도 · 착도<sup>7)</sup>

그런데 왕망이 황제 자리에 오른 始建國 元(AD 9)년에는 계도와 착도, 오수전을 폐지하고 그 대신 직경 6분, 무게 1수의 소천직일을 주조하고 이것을 1전으로 삼아 대천오십과 함께 통용시켰다. 이에 따라 무제 이후 화폐의 기본이었던 오수전의 사용은 일시 중단되었다.

이 개혁의 이유는 오수전이 이전의 한나라 통화이고, 또 계도와 착도 등 도전(刀錢)의 도(刀)라는 문자가 한왕실의 유(劉)씨 성에 나오는 글자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리고 오수전을 폐지하고 소천직일을 새로 주조하게 된 것은 오수전이 한왕조의 통화였다는 이유 외에 이것과 대천오십과의 실질비가를 맞추려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무게 1수인 소천직일 50개가 무게 12수인 대천오십 하나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비는 여전히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그 때문에 소천직일을 녹여 대천오십을 도주하는 자가 속출하여 민간에서 동과 숯의 보유를 금지시켰다.

그리고 시건국 2(AD 10)년 왕망은 더욱 복잡한 화폐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금, 은, 구갑(龜甲), 조개(貝), 구리(銅)를 재료로 한 6형식 28종류의 화폐를 제정하여 이것과 대천오십, 소천직일을 나란히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너무 복잡한 제도였다. 가령 동화(銅貨)의 경우 우선 그 형식은 전(錢)과 포(布)로 나누어져 전에는 무게 1수인 소천직일에서 무게 12수인 대천오십에 이르기까지 6종류가 있고 포에는 다시 10종류가 있었다.



도7. 6전<sup>㉞</sup> (1. 대천오십大泉五十 2. 장천사십壯泉四十 3. 중천삼십中泉三十 4. 유천이십幼泉二十 5. 요천일십玄泉一十 6. 소천직일小泉直一)



도8. 10포<sup>㉞</sup> (1. 소포일백小布一百 2. 요포이백玄布二百 3. 유포삼백幼布三百 4. 서포사백序布四百 5. 차포오백差布五百 6. 중포육백中布六百 7. 장포칠백壯布七百 8. 제포팔백弟布八百 9. 차포구백次布九百 10. 대포황천大布黃千)



이렇게 복잡한 여러 형식의 화폐는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 이 개혁의 결과 유통된 것은 소전과 대전뿐이었고 게다가 민간에서는 금지된 오수전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다.

天鳳 元(AD 14)년에는 이 대천오십과 소천직일도 폐지하고 대신 화포(貨布)와 화천(貨泉)이라는 두 형식의 화폐를 만들었다. 이 화폐는 동근 모양에 네모난 구멍이 동화로 무게는 5수, 표면에는 화천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오수전의 이름을 바꾸어 다시 만든 것이다. 화포는 전국시대의 포전(布錢)을 모방한 것으로 그 명칭 역시 「주례」의 기사에 따른 것이고, 무게는 25수였다. 화천 25개가 화포 하나에 해당하였지만 실제 무게로는 화천 5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천 5개를 녹여 화포 1개를 몰래 만들어 그것을 다시 화천 25개로 바꾸면 화천 20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같이 왕망대의 화폐정책은 너무 자주 바뀌었고 내용도 복잡해서 일반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물론 왕망은 화폐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화폐를 몰래 만드는 자를 사형에 처하고, 위폐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며, 화폐제도를 비난하는 자는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 그래도 위반자는 계속 발생했고 형벌을 완화해서 범죄자를 관노비로 삼는다든가 혹은 강제노동에 충당시키거나, 그 이웃 다섯 집도 같은 죄를 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화폐정책의 유지 했다. 그러나 그의 화폐 정책은 사회에 커다란 불안과 동요를 일으켜 결국 왕망 정권 붕괴의 최대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4.3. 한반도 남부 왕망전 출토유적

한반도에서 출토된 왕망전은 화천이 가장 많고, 화포, 대천오십, 대포황천의 순으로 출토가 되고 있다. 제주 산지항에서는 오수전과 동반하여 출토된 사례가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왕망전만 출토되고 있다.

화천이 출토되는 유적 중 김해 회현리, 제주 종달리, 해남 군곡리 유적에서는 패총에서 1점만 출토되고 있는데, 모두 해안가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김해 회현리 패총 출토품에는 도끼자국과 같이 찍힌 흔적이 있어 항해의 안전을 위한 의례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sup>4)</sup>. 또한 광주 북룡동과 제주 산지항, 그리고 이번 해남 흑천리에서는 10점이 넘는 화천이 각각 출토되었는데, 특히 광주 북룡동과 해남 흑천리는 무덤에 부장된 것으로 노자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덤에 돈을 부장하는 사례는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인들에게서도 확인되는 것인데, 상업과



도9. 한반도 남부 출토 왕망전



교역이 발달한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무덤에 부장하거나 얹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또한 제주 금성리 출토품을 비롯하여 동전에 구멍이 있는 사례가 있는데, 동검이나 소지품에 매달아 장신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경산 임당 등지에서 확인된다<sup>[5]</sup>. 이것과 관련하여 중국 군현과의 교역 시, 출입증, 허가증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漢書』「王莽傳」에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거기에는 “吏民出入 持布錢以副符傳 不持者 廚傳勿舍 關津苛留(포와 동전 등을 소지하지 못한 이민은 관진을 출입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동전 등을 가지고 있어야 군현에 출입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화천의 용도는 다양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척도로서 교환에 이용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동전이 부장되는 이번 사례나 광주 복룡동 무덤의 예가 확인된다. 향후 분석을 통해 한반도 남부에서 동전을 주조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3. 한반도에서 왕망전이 출토된 유적

연번	유적명	수량	주조연대	유구	공반유물
1	김해 회현리	화천 1	14	패총	토기, 횡통문경,
2	제주 종달리	화천 1	14	패총	점토대토기
3	제주 금성리	화천 2	14	주거지	연질토기, 방추차, 어망추
4	제주 산지항	화천 11, 화포 1, 대천오십 2	7/14	제사	오수전 4, 동경, 검부속구
5	전 제주도	화천5/ 대천오십 5	7/14	-	-
6	해남 군곡리	화천 1	14	패총	점토대토기
7	해남 흑천리	화천 13	14	분묘	토기, 구슬
8	나주 랑동	화천 2	14	기타	고배, 삼족기, 옥
9	광주 복룡동	화천 49 (오수전1?)	14	분묘	연질호, 유리구슬
10	부여 석목리	대천오십 1	7	기타	목간, 도가니, 철촉
11	장흥 평화리	대포황천 1	10	수혈	타날문토기

## 5. 맺음말

한반도에서 출토된 동전 13점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육안으로는 화천이라는 명문이 확인되는 것 1점이었지만 Nano CT 촬영을 실시해 화천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첫째, 단층촬영 영상(Nano CT)을 이용하여 13점 중 12점에서 ‘화천’이라는 명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동전 꾸러미는 화천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동전 꾸러미는 원래는 하나의 꾸러미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 서로 수착되어 3, 3, 7개씩 3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꾸러미가 출토되는 사례는 인천 운북동 2호 주거지에서 오수전 20점, 광주 북룡동 2구역 1호 토광묘에서 화천 48점이 있다. 교환의 척도로서 화폐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추정된다.

셋째, 화천은 중국의 왕망전으로 기원후 14년 왕망의 제3차 화폐개혁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동전이다. 또한 왕망의 신은 기원후 23년 멸망하므로 아주 짧은 시기에 사용된 동전이다. 이런 동전이 출토되는 유구는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연대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으로 화천의 조성성분이 있다. 부식이 심하고 금속심이 남아있지 않아 성분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향 후 동지역의 화천 출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반도 남부에서 동전을 주조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단층촬영 장비를 이용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고학적인 해석을 더하였다. 향 후 이러한 학문 간의 협업을 통해 많은 새로운 자료들이 빛을 보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1. 대한문화재 연구원, *해남 흑천리 마등유적 조사보고*, (2019).
2. 동북아지식묘연구소, 광주 월전동 하선·복룡동·하산동유적, *학술총서* 46, (2018).
3. 정수빈, 박학수, 하남시 춘공동 출토 청동현향로(靑銅縣香爐)의 제작기술과 보존처리, *박물관 보존과학* 16, (2015).
4.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회현리 패총, *일제강점기자료조사 보고* 9, (2014).
5. 이영훈·이양수, 한반도 남부 출토 오수전에 대하여, 영천 용전리 유적, *국립경주박물관 학술조사보고* 19, (2007).
6. 권옥택, 한반도 남부·일본열도 출토 漢代화폐와 용도·오수전·왕망전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84, 영남고고학회, (2019).
7. 漫話中國錢幣之王莽錢9, 每日頭條 2017.9.7. <https://kknews.cc/culture/oogrn25.html>.